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공자들

최근 공화국의 과학기술진단에서 제36차 평양과학기술축전에서는 진흥되었다.



향상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과학기술성공파발표와 전시, 과학기술연단운영과 새 기술, 새 제품류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과학교육 부문,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시안의 기술자와 기능공 등이 참가하였으며 850여건의 가치있는 제안들과 4 500여점의 전시품, 5 000여점의 첨단기술제품, 특허제품들이 출품되었다. 과학기술축전에서는 평양시 관광객수종합기업소에서 개발한 무개도전자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기상수문학부문에 서 내놓은 태풍과 황사를 감

시하고 예보하는 체계와 산물 위험을 평가하는 체계도 나라의 귀중한 재부와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석탄가스화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폐가스를 리용하여 스프롤리나를 배양하는 방법과 염소젖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공정, 장식마감건재를 생산하는 방법 등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에서 실효가 큰 새 기술, 새 제품들도 많이 출품되었다. 이번 과학기술축전에는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치있

는 과학기술성공자들도 전시되었다. 임의의 장소에서 호흡기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짧은 시간내에 할수 있는 휴대용흡입치료기와 신기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천연 유기기능성식품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진행된 제36차 평양과학기술축전은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더욱 불려일으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리철민

2022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 (1)



김일성종합대학 자원과학부 실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룡홍
지하조염수자원의 탐사 및 취수기술과 관련한 대상과제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룡홍은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조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0여년전부터 그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지하조염수자원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서해안지역에서 그에 대한 탐사전제를 마련하고 성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실장 공훈과학자 박사 장승준
약하면서도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그는 련이어 국내무연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관념을 타파하고 중유를 전혀 쓰지 않는 산소-미분탄화장장치를 개발도입하기 위해 고심어린 나날을 이어

계몽상사리원농업대학 첨단기술제품교류소 실장 공훈과학자 박사 김창유
김창유는 농업부문에 소문이 자자한 《신양2》호복합균과 그것을 리용한 유기질 비료생산기술의 개발자이다. 고년의 시기부터 그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높은 효과를 담보할수 있는 복합균을 얻어내기 위해 전국각지를

봄철 건강관리를 잘하려면
봄철에는 다른 계절과 달리 건강관리를 조금만 잘못해도 이미 있던 질병들이 도

화식병들의 말에 의하면 소금물속에서 메주가 익어지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한편 익은 음식이 소금물속에서 또 익어지다... 군사들은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고 화식병들을 나무랐지만 메주죽그릇을 받아들 때면 너무 맛이 좋아서 허가 다 말려든다고 칭찬하였다.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메주죽을 먹으면서 아군은 용기

듣고안 해는 메주죽을 쑤는 일에 두팔걸고 달라붙었다. 공떡을 빚어 방 한구석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더니 과연 며칠 지나 하면 곰팡이 생기기 시작해서 갈라터지였다. 그러니 공떡이 메주로 변한것이였다. 공떡의 속에까지 곰팡이 썩어 안해는 부엌에 질항아리를 들여다놓고 그것들을 옮겨놓았다. 그다음 군사들이



백배하여 마침내 외적을 물리쳤다. 중흥왕을 치는 적들을 성문을 활짝 열고 나가 쳐부시는 싸움에서 고달은 많은 적을 잡았다. 그 공으로 승진고속에 왕검성으로 임성하여 나라님이 하사하는 상을 받았고 그걸로 활쏘기시합에 나가서는 백발백중의 명궁술을 펼친것이였다. 고달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동이에 다가가보니 단내가 확

조선의 국수-소나무
소나무는 사철푸른 바늘잎나무로서 공화국북부의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해발높이 800m아래의 넓은 지역에 퍼져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의 성장을 조절하는 엄중한 겨울에도 푸른 잎새 변치 않고 설한풍을 깨끗이 이겨내며 마침내는 봄을 맞이하는것이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강한 의지와 굳은 절개, 순결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강용하고 정직함이 강하며 지조가 굳은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사시절 푸르고 역센 소나무를 민족적기상의 상징으로 내세웠으며 매우 사랑하여왔다. 소나무에 대한 우리 민족의 남다른 민족적정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따라 자주적이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예극투쟁행로에서 더욱 승화되었다. 백설천지속에서도 깨끗이 서있는 소나무의 기상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공화국인민들의 강의한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형성된 소나무에 대한 인민들의 감정과 유산들, 소나무의 사회경제적의 등을 구체적으로 헤아리시고 소나무를 조선의 국수로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들어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악원을 일떠세우려는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담고있는 소나무는 이 땅우에 끝없이 푸르러 설레일것이다. 본사기자

두도의 거리를 달리는 새형의 2층버스

요즘 평양의 거리들로 새로 만든 2층버스가 달리고있다. 노란색을 바탕으로 회색과 검은색의 갈기를 달리는 해물처럼 형상한 차면과 전자시계를 설치한 차체앞면은 시원하면서도 현대적미감이 있다. 진동과 소음이 없는 2층버스는 속도가 좋을뿐 아니라 제동이 넓어 오르고내리는데서 불편이 없게 하였다. 편안하면서도 표준한감을 주는 의자들과 은은한 빛을 뿌리는 천정등들은 안전한감



속담과 뜻
◆ 봄도 한철 꽃도 한철
청춘은 누구에게나 한때 라는 뜻으로 쓰이던 말.
◆ 봄소나기 심경제
봄에 오는 소나기는 세월에 걸쳐 온다는것을 이르는 말.
◆ 봄에 간 병아리 가을에 가서 헤어본다
별려놓은 일을 끈지게 처리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부리는것을 이르는 말.

각지에서 나무심기 활발히 진행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예극열의가 뜨겁게 분출하는 속에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황해남도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떨쳐나 산과 들, 거리와 마을주변들에 나무를 정성껏 심고있다. 그들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아니라 몇그루 살렸는가 보다 중요하다는것을 자각하고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다. 강원도에서도 땅이 녹은 상태를 잘 따져보고 적지들을 확정해 기초하여 조성목적으로 따르는 수종배치와 나무모보장사업을 적극 앞세우고있다.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심는 나무들의 사름물들을 높이기 위해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마다에 정성을 기울이며 예극의 마음을 함께 묻고있다. 남포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를 풍치수려한 향구문화도시로 꾸밀 일념을 안고 적지들에 구멍이를 잘 파고 부식토도 충분히 주면서 나무심기에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이들은 하루에만도 소나무와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많은 나무들을 심었다. 개성시에서는 단위별로 적

지를 선정해주고 나무모보장을 따라세우면서 시안의 근로자들이 모두 나무심기에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적지적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무심기를 실속있게 내밀고 있다. 한편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 나무심기를 의의있게 조직하고있다. 얼마전 시안의 청년들은 보통강혁명사적지에 잣나무와 소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한 천연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공화국인민들의 예극의 마음에 받들려 나라의 산들은 나날이 더욱 푸르러가고 있다. 본사기자



사화

밥맛을 돌구어주는 토장 (3)

안해는 너무 안타까와 사정하며 말했다. 《이보세요. 콩비지가 그렇게 맛이 없으세요? 그럼 무슨 음식이 생각나세요, 예?》 그 말에 덤덤히 앉았던 고달이 입을 열었다. 《무얼 먹고싶은가고? 가만... 그런데 하나 있긴 있는 군데... 바닷물고기였다.》 안해는 너무 좋아 고달의 손을 덥석 그러쥐었다. 《뭘때요? 어서 말하세요!》 《내 젊었을적에 군사로 나가있던 전장에서 말이요. 메주죽이랑 잘 맛나게 먹었소.》 《메주죽이요?》 안해는 난생처음 듣는 소리에 두눈이 등그랬었다. 세상에 메주는 있어도 그걸로 죽을 쑤어먹는다는 소린 여지 듣지 못했다. 고달의 생각은 스무해전으로 거슬러갔다. 여러날의 격전에서 제때에 먹지 않고 야겨 남겨두었던것이 누기를 받아 곰팡이 낀 양이었다. 전장이 그것을 하나 들고 빼겨려 하니 부슬부슬 부서져서. 《허- 메주 한가지로군.》 전장은 허연 곰팡이 낀 공떡을 그냥 먹으면 배앓이를 할수 있다면서 끓이게 하였다. 소금을 약간 치고 펄펄 끓인 죽은 별나게도 그 맛이 들큰하고 구수했다. 뜨끈한 메주죽을 한그릇씩 받아든 군사들은 천하별미라면서 맛있게 먹었다. 가릴한 싸움은 인차 끝나지 않았다. 병력수가 줄어들자 화식병들도 싸움판에 나가야 했다. 화식병들은 남은 메주를 몽땅 질항아리에 담고 짭짤한 정도도 소금을 탄 물을 풀땀 부어넣었다. 메주덩이를 잔물에 담아놓으면 허연 곰팡이 더 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이 사실을 안 전장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군사들에게 익은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 그것을 끓이라는 령을 내렸다. 맹물을 조금 더 두고 쑤 메주죽은 멀진 죽이었는데 맛은 이전보다 한결 더 달맛이었다. 이상한것은 질항아리에 둔 메주로 쑤 죽이 날로 달아지고 구수해지는것이였다.

풍성한 우리 딸의 유래

《랑패》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랑패란 짐승이 있었는데 랑은 수컷, 패는 암컷이다. 그런데 패는 앞다리가 짧아서 걷지 못하고 반드시 랑의 등허리에 앞발을 얹고서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랑만 놓치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혀가 되여있었다. 《랑패》는 《랑을 잃은 패》라는 뜻으로 《꼼짝 못하게 된 처지》나 《여지없이 망가진 일》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있다. 본사기자

오묘 네 형제의 돌나르기

어느날 아버지가 담장을 쌓을 돌들을 날라오라고 네 형제에게 분부하였다. 그들은 저마끔 작은 돌을 골라서 날라왔다. 큰 돌은 서로 밀면서 누구도 가져오지 않았다. 나중에 제일 큰 돌이 하나 나왔다. 형제들은 그 돌을 함께 날라오기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모두 힘든 시늉을 하면서 《영차》 하고 돌을 들어올렸다. 그 순간 말이가 생각하였다. (작은 돌을 나를 때 내가 너희들보다 좀 더 다였으니 이번에는 힘을 쓰지 않을테다.) 돌재와 셋째도 (넷이서 돌을 함께 드니 내가 힘을 쓰지 않는지 알겠지 뭐야.) 하고 생각하면서 손뼉을 놓았다. 넷째는 형들보다 한수 더 써서 전혀 힘을 쓰지 않았다. 순간 큰 돌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들의 발등을 찍었다.